

■ '다리에 혈관이 꿈틀' 하지정맥류 치료

약물·수술 복합요법으로 잡는다

방치하면 레이·폐동맥색전증 등 합병증

국소마취 수술 간단 ... 곧바로 일상 복귀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반바지와 미니 스커트의 계절이다. 하지만 노출의 계절에도 바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아리에 지렁이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노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여름이 고욕일 수밖에 없다.

◇ 하지정맥류란=다리에 거미줄이나 그물 모양의 푸른 혈관이나 구불 구불한 뱀 모양, 파리 모양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정맥류는 누워 있거나 다리를 들고 있을 때는 그 정도가 경미해 지거나 없어지지만, 서있는 자세에서는 그 정도가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정맥류는 나이가 들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비만한 사람, 또 장시간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 방치할 경우 피부가 썩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다 결국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정맥류증상=외관상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

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무겁고 빠근하며, 붓고 당기거나 야간에 쥐가 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병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서 있을 때 정맥압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혈관의 확장으로 다리가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미용상 보기가 흉하고,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특히 종아리부위 등) 가려움증을 느껴거나 피부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맥류 내에서 피가 엉겨 혈전을 형성하거나, 만성으로 다리가 계속 부어 있는 만성부종,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혈액성분과 제거되지 못한 대사 산물로 인해 피부가 검게 착색돼 굳는다. 피부가 파이는 궤양·출혈 등과 같이 피부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체 변화가 일어나고, 폐동맥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 정맥류치료=크게 약물요법과



문승호 다정외과 원장이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정맥 핏줄 일부를 잘라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있다.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가지 치료법 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없으며 여러 치료법의 종합적인 적용을 통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치료는 반드시 혈관 초음파를 시행해서 역류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이중 혈관경화요법은 작은 크기의 정맥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주 가는 바늘을 통해 경화제를 정맥에 주사한 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정맥이 쪼그라들어 결국에는 흡수되게 하는 치료법이다.

또 레이저 응고술은 비교적 큰 혈관에 역류가 있을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 문제가 있는 정맥(주로 대복재 정맥) 안으로 레이저 광섬유(fiber)를 집어넣어 레이저 에너지

로 혈액을 응고시키고,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혈관을 막는 시술이다. 국소마취로 시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곧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정맥류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책상 작업 등 다리 움직임이 적을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책상에 하루종일 앉아 지내는 것도 원인이며, 잦은 찜질과 오랜 시간의 뜨거운 샤워도 주의해야 한다.



〈메디필 다정외과 문승호 원장〉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기관' 지정

수급권자 등 50% 지원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 원숙)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병권)로부터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은 그동안 사적 계약에 의존해온 간병서비스 영역을 공적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 강진의료

원이 각각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간병비는 환자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간병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간병서비스의 형태는 환자상태(경증, 중증),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간병부터 공동간병(1:2~1:6)을 환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델로 제시한다. 아울러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간병인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교수회의실에서 외국인 의사들을 초청해 연수 과정 중 견학사항과 연수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전남대 제공>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외국인 치과의사 연수생 '복적'

을석·박사 과정 등 8명

선진 의술을 배우고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원장 오희균)을 찾는 해외 치과의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남대 치전원에서 임상 연수를 받거나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치과의사는 8명에 달한다. 외국인 연수생들은 레바논·중국·방글라데시·몽골 출신으로 주로 교정학교실, 구강병리학교실, 보철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에서 연수중이다.

레바논에서 온 와엘씨와 중국의 이효걸씨, 방글라데시의 웃둘씨 등 3명은 전남대 치전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중에 있다.

또 중국 표영씨가 연변대학에서 구강외과학 학사 취득 후 치전원에서 연수 중인 것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아산·키아씨, 중국 정일성씨 등 4명이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이와 함께 몽골 Health Sciences University 치과대학은 매년 전남대 치전원의 선진 의술 습득을 위해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에 임상 연수(1년) 교수를 파견해 오고 있다.

외국 치과의사들의 연수가 늘고 있는 것은 전남대 치전원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치전원과 치과병원의 지속적인 해외 의료봉사활동, 아시아지역 의대·치대와의 학술 교류 협정에 따른 이미지 개선도 크게 작용한 분석되고 있다.

전남대 치전원은 중국 대련의과대학, 몽골 Health Science University 치과대학과 각각 2005년, 2008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오희균 치전원장은 10년 동안 매년 설 연휴를 이용해 방글라데시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방글라데시 치과의사 1명을 초청해 대학원에 다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가족치아 이식술 무료시험 시술

조선대 치과병원 ... 부모 형제간 '치아 골 이식'

한국 자가치아 뼈은행 부설 '가족치아 은행'을 개설한 조선대 치과병원(원장 황호길)이 가족치아 이식술에 관한 무료시험 시술을 실시한다.

가족치아 이식술은 발치한 사람나를 가공해 부모의 임플란트 시술용 골이식체로 제공하거나 형제 간에 기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발치 비용과 약값만을 내며, 가족이 기증한 치아로 골이식체를 만들어 시술하는 모든 비용은 면제받는다.

기존의 인공뼈나 동물뼈 등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골이식체를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치아를 이용해 골이식체를 만드는 '자가치아 골이식체' 시술은 김수관 조선대 치대교수 등에 의해 최초로 도입돼 점차 상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자신의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체 보다 진

일보한 방법이 '가족 치아 골이식'이다.

가족의 치아를 골이식체로 이용하면 유전적 결함이 동일해 흡수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전염적 위험이 전혀 없고, 치아에 함유된 유기질인 플라센을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이식되는 잇몸뼈와 동일한 골기질을 갖게 돼 기존의 골이식 재료보다 임플란트의 기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의 치아를 장년층 또는 노년층이 사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기존의 골이식체는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비용도 오히려 더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감염성 폐기물인 치아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공익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문의는 062-220-3814.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home care service system, featuring a large table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including eligibility criteria, service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able is organized into columns and rows,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service.